

농어촌공 고창지사, 청렴·공정문화 확산 위해 ‘머리 맞대’

‘2025년도 청렴소통간담회’ 개최, 계약업무 투명성 및 신뢰도 제고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지사장 임근춘)는 27일 최근 계약 실적이 있는 시공·용역사, 납품업체 등을 초청하여 ‘2025년도 청렴소통간담회’를 개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반부패신고 ▲청렴·공정거래협약 ▲현장관리 개선의견 공유 ▲소통채널 운영 방안 등 불공정 관행 예방을 위해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를 설명하였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공공기관 사칭 피해사례를 안내하기도 하였다. 또한, 참여업체의 건의사항 및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내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며 갑·을 관계가 아닌 동반자 관계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업체 관계자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청렴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계



기가 되었으며 소통할 기회를 갖게 되어, 더욱 의미있고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임근춘 지사장은 “청렴과 공정은 기본 원칙이자 신뢰의 출발점”이라

며, “앞으로도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가 청렴문화 정착에 가장 앞장서는 공공기관으로서 청렴을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고창=정관진 기자